

9시 내 쿠팡 - 어서와 로켓배송은 처음이지?

2022. 6. 28.





그렇군요..
아무튼 초대해 주셔서
감사해요

이 집은
유니크한 인테리어로
온라인 매거진에 소개된 적도
있다면서요?



저 완전
기대하고 왔는데..

글로벌컨텐츠팀
세르게이

만화가
유진정

정말 분위기가
있네요!

20년 전에 지어진
오래된 집이라
손을 많이 봤죠



스위치, 조명, 벽지, 수전,
싱크대 호스와 트랩 등등
손이 안 간 곳이 없다니깐요..

천장이랑 바닥이 다 원목에..
가구들도 되게
느낌이 좋아요



아 가구는 대부분
가레쓰가 만든 거예요.
이 책상도,



제가 구상을 해서
남편에게 전달하면,
실물로 제작을 해주죠

헐 대박



가레쓰몽
나 책상이 필요해!
이런 책상을
만들어줘!

OK!

코로나가 시작되고
무대 일이 줄어들어
목공에 도전하고 있죠

그런데 가레스 씨는
한국말 아직 잘
못하시잖아요.

재료나 공구 구하는 것부터
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..

후후후..

우리 마누라가 다니는
쿠팡이 있지 않습니까!!

원목부터
파워툴까지
안 파는 게
없어요!

부품을 잘못 주문해도
반품이 편리하고,
영어검색이 가능합니다!

더 놀라운 건,
필요한데 부품 이름을
뭐라고 검색해야 될지
모르겠는 것들도 있잖아요?
이런 거 말이에요.



이걸 대체
뭐라고
부름 지야??

그래서 정말 답답한 상태로
그냥 평범한 'M8 볼트'를
검색하고 있었는데..

아니 세상에 어느 순간
쿠팡 추천목록에 이게
딱~~~ 뜨더라니깐!!??



WTH????

쿠팡의 자랑,
머신러닝 기반
추천 알고리즘의
힘이죠!

그야말로
one of those
happy moments
였어요..



저기 그런데요.. 가레스 씨의
외모와 저 금속의 형태를
보고있으니까..

..인셉션?!

어쩐지 이 공간도
초현실적인 느낌이더라!!
혹시 이거 다
꿈 아니에요????

난 막
원고마감 직전에
잠든 상래고??





헐 진짜로 납작하네



손님이 오면 무서워해 가지고..
길고양이였는데 밥 주다가
저희가 데려왔어요.

고양이 용품도 쿠팡으로
주문하면 편리하더라고요

그럼 이제 식사 하시죠.
가레쓰가 양고기
구울 거예요



이 공간도
너무 예쁘네요!

아 외국 식재료도
쿠팡에서 찾아볼 때
있지 않나요?

네 어디서 사야할지
모르겠는 건 일단
다 있어요 ㅎㅎ



매입부터 배송까지! End-to-end 물류체계!

일반 이커머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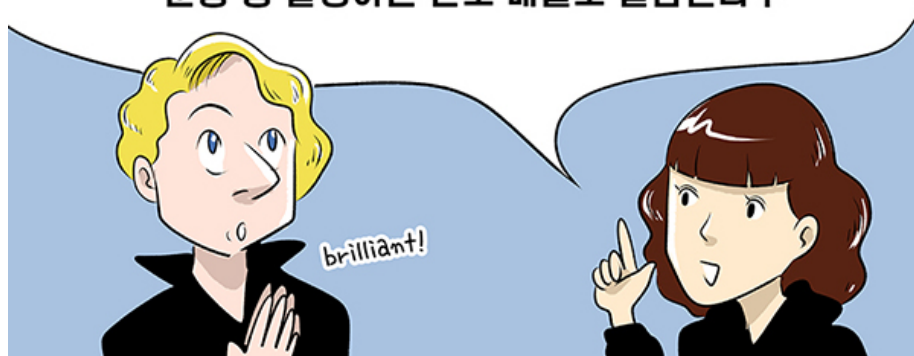


coupang

적은 유통단계로 탄소 배출량 절감



**유통단계를 대폭 줄여 배송이 빠르고,
운송 중 발생하는 탄소 배출도 절감된다구**



그리고 코시국 격리기간 동안
쿠팡이츠를 애용했습니다..

폰 언어 설정을 영어로 해두면
영문 지원이 되더라고요.

주로 뭘
시켜 드셨나요?

지코이 치킨..
너무 중독적이야..

헤민 나 바베큐 왜 한거지?
담번엔 그냥
지코이 치킨 시키자

오늘 이야기를 종합하자면,
한국에 사는 외국인으로서
쿠팡 없는 생활은
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!

쿠팡은 나의
“bread and butter”
가 되었달까.

실제로 와이프의
직장이기도 하고..

Today's
생활영어

<bread and butter> :
삶에 있어 필수적인,
떨레야 떨 수 없는, 밥줄





남작해지는 고양이

[English Post Link](#)

취재 문의 media@coupang.com